

서울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1)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범금희*

- I. 머리말
- II. ‘가지다’ 및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 III.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 IV. 맺음말

【요 약】

본고는 앞선 연구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을, 문법화 관련 가설 중 어원어2) 고빈도 원리 및 용언의 상관성에 기대어 살펴 보고자 했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과 강사

- 1) {어 가지고}는 ‘가지다, 가지고, 어 가지고’의 자유 변이형과 활용형들을 모두 포함해서 쓴 것이다. 즉 { } 표시는 자유 변이형과 활용형들을 모두 포함할 때 사용한다.
- 2) 본 논문을 꼼꼼히 읽고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 를 드린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은 관련 사항에서 부분적으로 그 이유를 밝혀 놓았다. 심사자께서는 어원어 용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말하는 어원어 또는 어원적이라 할 때의 개념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그것과 다르다. 본고에서의 어원어 또는 어원적 어형은,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지다’의 다양한 활용형 중에서 ‘어 가지고’와 관련 있는 일련의 것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어원적 어형을 결정지었다. [가지고/ 가지구/ 가주고] [가주] [갖고/ 갖구]의 세 유형이 그것이었다. 둘째, 확정된 어원적 어형들은 어미 {어}가 결합한 뒤에도 텍스트적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어원어의 텍스트적 고빈도 출현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과 관계있는 결과임도 알게 해 주었다. 셋째, 어원적 어형에서 자주 나타났던 ‘가다, 오다’ 용언도 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이는 어원적 어형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용언이 해당 문장의 표면적 구조에 일정 부분 관여함으로써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넷째, 문법화 과정에서 어미 {어}의 영향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즉 어원어는 문법화와 관련 있는 어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미는 복합 동사와 사동사, 피동사, 부정형 그리고

{어 가지고} 관련 문법화 현상 중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를 고찰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즉 {어 가지고} 관련 문법화 현상의 그 첫 출발적인 ‘가지다’를 ‘어원어’ 또는 ‘어원적인 언어 형태(어원적 어형)’이라 일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익명의 심사자가 말하는 ‘어원적 형식을 찾기 위해서는 현대 국어의 형식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문법화가 시작되었다고 간주되는 시기 이전의 실현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가 본 연구의 핵심적 목적이 아님을 밝혀 둔다. 참고로 이성하(1998)에서는 ‘어원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 (42) a. 철수는 밀가루가지고 빵을 만든다.
b. 철수는 나를 가지고 자꾸만 놀렸다.

(42a)에서는 ‘가지다’라는 동사가 도구격 표지로 쓰이고 있다. (42b)에서는 동사 ‘가지다’가 대격 표지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의 문법화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원어의 의미가 아직은 투명하게 남아있고 형태통사적으로도 어원 구문의 흔적이 있어서 수의적으로 목적격 표지를 동반할 수도 있다.

형용사 등의 적극적 수용과 관련 의미의 지속성 및 증만들기 현상에 더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서울 토박이말의 경우, 앞선 논의인 대구 토박이말과 달리, ‘가지-’ 어간에 어미 {고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지고서’ 및 ‘어 가지고서’ 관련 어형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화의 지속성 및 증만들기와 관계있는 듯한 이 현상은 대구 토박이말과 서울 토박이말의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은 후고로 미루었다.

I. 머리말

본고는 {어 가지고}와 관련된 일련의 문법화 현상 중, 어형별 실현 양상에 관한 것으로서 서울 토박이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어 가지고}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³⁾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아래는 그 중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 (1) 서울시 도봉구 : ‘-가주구/ 가지구’
경기도 여주군 : ‘-가주고/ 가주구/ 가지구’ (김미영, 1998)
경상도 동북부 : ‘-가주고’, ‘-가’
서울: ‘-가지고’ (김태엽, 1987 : 임규홍 1994)
- (2) 대구 토박이말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어원적 어형 : [가아/ 가] [가주] [가주고]
용언 : ‘가다, 오다’
어미 {어}의 영향 : ‘하다’, ‘되다’ 및 사동형, 피동형, 복합동사의 적극적 수용 및 형용사와 명사의 출현 (범금희 2006)

3) 홍윤표(1984), 김태엽(1987), 임규홍(1994), 성낙수(1999), 이정애(2002) 등.

(1)은 각 지역어 또는 토박이말을 대상으로 {어 가지고}와 관련된 음운론적 축약 및 형태적 재구조화 등을 살펴거나 의미·문법론적 특성에 따른 용언의 분포 등을 살핀 것이다. (2)는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을 대상으로 어원어 고빈도 원리에 의한 문법화 현상 관련 어원적 어형 확정 및 용언의 실현 양상⁴⁾ 고찰이었다.

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을 논의하고자 한다.⁵⁾ 첫째, 어원어 고빈도 원리(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를 본고의 이론적 출발로 두고자 한다.⁶⁾ 여기에 의하면 본고에서의 ‘가지다’는 {어 가지고} 관련 문법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어원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과 관련있는 ‘가지다’는 어원어에 해당하고 그것에서부터 시작해 관련 문법화 현상과 밀접하게 나타나는 어형을 {어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⁷⁾이라 볼 수 있다.

4) 용언을 같이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정애(2002)를 참고해도 도움이 된다.

5) 본고의 연구 방법론은 이미 줄고(2006)에서 적용한 바 있다. 여기서는 서울 토박이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6) 이 원리는 이미 친숙히 알고 있거나 의미상으로 유사한 단어를 이용하는 의사소통 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이다. Bybee, Perkins & Pagliuca(1994)에서는 ‘어원 결정 가설(Source Determination)’이라고도 했다. 어원 결정 가설이란 어원어의 의미에 의해서 문법소의 문법화 방향이 결정된다는 가설이다. Traugott(1982: 246)에서도 문법소는 발화 상황에 아주 근본적인 개념을 그 어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유사한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Hopper & Traugott(1991)의 의미 지속성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이성하(1998)에서 재인용). 자세한 것은 관련 문헌 참고.

7) 이성하(1998)에서는 어원어와 어원적 어형(본고에서는 어원적 어형)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의미 지속성(Persisence)이란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법소는 그 어원적인 언어 형태로부터 차츰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의미도 변화하고 음운 형태도 변화한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거친 후에도 원래 어원어의 의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이러한 지속 현상을 의미 지속성이라 부른다.”

또한 Givón(1981 : 15(이성하(1998)에서 재인용))에서는 텍스트적 빈도가 높아지면 언어 사용자에게 의해 해당 어휘가 의미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문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했다. 이는 또한 어떤 어휘 항목이 문법화를 겪으면 그것의 빈도가 높아지게 됨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한영균, 2004 : 212), 본고도 {어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의 출현 횟수를 통해, 문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이, 어원적 어형과 밀접하게 관련있음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둘째, 말뭉치 언어학과 계량 언어학에서 자주 논의되어 온 언어 관계(collocation) 및 통사적 결합 패턴(pattern)에도 주목하고자 한다.⁸⁾ 이는 자료를 분류하거나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할 개념이기도 하다. 언어 관계는 어떤 관찰 중심어(node)⁹⁾에 대해 자주 등장하는 어휘들의 관계¹⁰⁾로서 빈도수나 심리적인 면에서는 관용어에 가깝다.¹¹⁾ 통사적 결합의 패턴적 양상은 의미 기능에 기여하는 한 어휘와 일정하게 조합되는 구조이거나 대상 어휘와 함께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성이다. 문법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화용론적 강화(pragmatic Strengthening)는 어떤 언어 표현이 특정 문맥에 빈번히 쓰임에 따라 문법적 변용에 의해 생성된 일시적 의미가 고정되는 것을 뜻한다. 특정 문맥에 빈번히 쓰이게 되면 자연히 해당 어휘 항목의 언어 중 그 문맥을 이루는 것들의 비율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한영균, 2004 : 212). 이미 줄고(2002a)에서는, 대구 토박이말만 대상으로 했지만, 특정 문맥 속에서 해당 어형이 특정 용언

8) 남길임(2006) 참고.

9) 중심어(node)는 언어 관계를 살피는 대상이 되는 언어 단위를 가리킨다. 이것은 연구 목적에 따라서 어떤 단어의 어간형일 수도 있고, 굴절형일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나 절이 될 수도 있다(한영균, 2002 : 145).

10) 언어 관계란 기본적으로 한 문장 안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울려 쓰이는 단어들의 결합 관계이다(한영균, 2002 : 145).

11) 한영균(2002), 남길임(2006), 박병선(2005) 참고.

과 어울렸을 때 의미 기능이 고정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특정 문맥 속에서 해당 어형이 특정 용언과 짝을 이뤄 언어적 관계 또는 통사적 결합의 패턴적 양상을 보일 때 해당 문장의 의미 기능을 고정화 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3) [+보유] 중심적 의미

A : ~{을/로} ~‘가자, 가주, 가아, 가’ ~‘가다, 오다, 나오다’

B : ~ $\emptyset$ ~‘가자.’ + ‘-(으)러’ ~‘오다’

[+보유] [+수단] [-이동]

C : ~{을/로} ~‘가지골랑, 가주고’ ~‘누르다, 딱다, 치다’ 등

[+보유] [-수단] [+이동]

D : ~{에} ~‘갖다, 갖다가’ ~‘놓다, 놓다, 시키다, 하다’ 등

[-보유] [-수단] [-이동]

E : ~{을} ~‘갖다가’ ~‘하다’

(범금희 2002a)

그렇다면 문법화의 요인인 화용론적 강화를 이들의 정의와 연관 지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원적 어형, 용언 그리고 어미 {어}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에서 발생하는 통사적 결합의 패턴 양상 또는 언어적 관계의 결과는 해당 문장의 화용론적 강화와 관련지어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¹²⁾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개념 - 언어적 관계와 통사적 결합의 패턴 양상 - 을 서울 토박이말에도 적용시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셋째,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가지다’의 관련 선행 연구는, ‘가지.’ 어간에 결합해 나타나는 어미 {고}와의 결합 양상만 언급하고 있다.¹³⁾ 그렇지만 해당 토박이말의 경우, 자료를 추출해 본

12) 대구 토박이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세한 것은 졸고(2006) 참고.

13) 현대 국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결과 어미 {고서}가 결합한 ‘어 가지고서’ 관련 어형도 나타남을 짧게나마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1)¹⁴⁾(4)』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그리고 해당 어형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입력한 다음 에디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색인하고 추출하여 분석·통계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는 앞선 연구를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아직까지 많은 작업과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기초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가지다’ 및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1. 어형과 유형 분류

‘가지다’ 관련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서울 토박이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추출해 본 결과, ‘가주’, ‘가주구’, ‘가지구’, ‘가지고’, ‘가지구설랑은’, ‘가져’, ‘가졌고’, ‘가졌으면’, ‘가져라’, ‘가진’, ‘갖고’, ‘갖구’, ‘갖다가’, ‘갖다’, ‘갖게’가 나타난다. 이는 활용형이면서 동시에 본고에서 말하는 ‘어형’에 해당한다.

위에서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지다’의 어간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는 <가지+X형>¹⁵⁾과 ‘가지.’ 어간이 줄어든 꼴인 <갖+X

다. 다만 적극적으로 기술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적극적으로 기술한 논의는 김미영(1998)이다. 관련 논의는 다음 장에서 기술한다.

14) 자료집 (1)의 경우 약 87% 정도를 입력하였지만 해당 현상을 보여 주는 데는 충분한 양이라고 판단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15) 위 표를 참고해, 어형 관련 논의를 전개할 때는 [] 기호 안에 넣어서, 유형 관련 논의를 전개할 때는 < > 기호에 넣거나 A, B, C 등의 영문

형>으로 설정한 뒤 그것을 유형과 어형으로 배치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가지다’ 관련 어형 및 유형 분류 전체 ①

<가지+ X>형							
A		B	C	D	E	F	G
A-1	가지고(7) ¹⁶⁾ / 가졌고(1)	가주 (6)	가지구실랑은 (2)	가져 (6)	가졌으면 (1)	가진 (2)	가져라 (1)
A-2	가지구(29)						
A-3	가주구(2)						

<표 2> ‘가지다’ 관련 어형 및 유형 분류 전체 ②

<갖+X형>				
H		I ¹⁷⁾		J
H-1	갖고(10) ¹⁸⁾	I-1	갖다가(41)	갖게(3)
H-2	갖구(6)	I-2	갖다(21)	

위 표에 의하면, <가지+X형>에 속하는 유형은 모두 7개로서 A~G가 그것이다. 아래의 예는 A~B에 해당하며 어미 {고}가 결합되거나 생략되어 있기에 문법화 관련 어형이라 추정되는 것이다.

(4) 공을 이렇게 가지구 손을루 해서, 손으루 해서... [가지+구]

(5) 이렇:게. 그런 패스포트를 가지고... [가지+고]

(6) 양:쪽에서 얼렐 가주구 한쪽 실을 얼레루 왕겨 감는단 말야.
[가주+구]

(7) 육이오 사변 때 가주 나갈 썩가 없으니까는. [가주+∅]

자를 사용할 것이다.

16) 해당 어형의 오른쪽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이다.

17) ‘갖다가’, ‘갖다’의 의미 기능과 표면적 구조는 줄고(2002a) 참고.

18) 부정형 ‘못 갖고(1)’를 포함한 숫자이다.

또한 위 예는 앞으로 III에서 논의하게 될 ‘어원어의 고빈도 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고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대상이기도 하다.

나머지 <가지+X형>의 어형은 어간에 {고}가 아닌 어미, {고서}, {어}, {면}, ‘-ㄴ’, ‘-(어)라’가 붙은 것이다. 아래가 관련 예이다.

- (8) 그걸 가지구설량은 말이야 [가지+구서+ㄴ량은]
 (9) 딸이 고기를 다져서 가져와서 죽에다 찹쌀 끓여... [가지+어]¹⁹⁾
 (10) 그 양반이 생가여탈건을 가졌으면 가졌고 뭐했지... [가지+었+으면]
 (11) 아무리 부모가 너 이거 종교를 가져라 하더래두... [가지+어라]
 (12) 내가 꼭 신앙을 가진 사람 찾는다는 게 늦어진 이:유가 됐고... [가지+ㄴ]

(8)의 ‘가지구설량은’은 ‘가지-’ 어간에 어미 ‘구서’가 결합한 다음 조사 ‘ㄴ량은’이 붙은 것이다. 이는 어미{고}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고서}가 ‘가지다’의 문법화 관련 현상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에서 이와 관련된 서술은 없었다. 오히려 현대 국어의 경우 ‘-어 가지고’만으로 나타난다는(김미영, 1996: 140)²⁰⁾ 기술은 있었다. 이와 같은 서술은 연구자의 자료 선정 및 선정된

19) ‘가져오다’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발간) 경우에는 하나의 어휘로 처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지다’의 어휘적 의미가 문법화 과정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지 그것을 추적해 보는 데 있다. 따라서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의 의미 기능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과 관련된 제반 현상을 두루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의미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어간을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연구의 필요 및 편의에 의해 [가지+어]로 분석해 제시해 놓은 것임을 밝힌다.
 20) 관련 논문의 각주 60번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어 가지다’는 그 활용꼴이 중세 국어에서 ‘-어 가지고’, ‘-어 가지어’, ‘-어 가지며’만으로 나타났고, 현대 국어에서는 ‘-어 가지고’만으로 나타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자료의 양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기존 논의에서의 인용된 그것은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생성한 것이거나 대부분 연구자 필요에 의한 소량의 구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의 자료에서는 어미 {고서}가 결합된 어형이 꽤 나타났다. ‘어 가지고서(14)²¹⁾, 어 가지고선(1), 어 가지구서(18), 어 가지구선(9), 어 가지구서는(2), 어 가지구설랑(1), 어 가지구설랑은(2)’이 그것이다. 이런 현상은 더 자세하게 살펴 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고서}가 {고}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어 가지고}와 {어 가지고서}가 또 하나의 층 만들기 및 지속성을 하고 있음을 추정하게도 한다.²²⁾ 더구나 {고서} 관련 어형들은 서울 토박이말에만 나타났다. 대구 토박이말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화 현상과 관련있는 듯한 이런 예들은 대구 토박이말과 비교해 논의했을 때 그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련 예 정도만 언급하고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룰 것이다.

또 다른 어미가 결합한 예도 나타난다. {다}, {다가}가 그것인데 다음이 그 예이다.

- (13) 어떻게 표준말 때문에 나를 갖다가 이제 오:시라고 하니까...
[갖+다가]
(14) 그거 한장 갖다 놓고 그제 일가고, 명절 때 보든. [갖+다]

21)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 횟수이다.

22)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는 ‘어 가지고/ 갖고’에만 관련된 현상이 아니며, 적어도 ‘어 가지고/ 갖고’의 ‘문법화의 지속성 현상’ 및 ‘층만들기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물론 ‘어 가지고/ 갖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에 여러 가지를 살펴 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이 {어 가지고} 관련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기에 {고}와 {고서}의 의미적 기능이 유사함에 착안해서 조심스럽게 추정한 결과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위 (8)과 (13) 그리고 (14)를 같이 비교해 보자. (8)의 경우, ‘가지-’ 어간을 중심으로 앞에는 어미 {어}가 뒤에는 {고서}가 등장한다. 하지만 어미 {다}와 {다가}는 ‘갖-’ 어간에만 나타나는 듯하다²³⁾. 즉 해당 어간 앞에 {어}가 있을 때는 관련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갖+X형>이다. 총 81회 나타나는 이 유형들은 ‘갖-’ 어간 다음에 어미 {고}, {다}, {다가}, {게}가 등장한다. 위 (13)과 (14)는 {다}와 {다가}가 결합한 것이고 아래 (15)에서 (17)까지는 어미 {고}와 {게}가 결합한 것이다.

(15) 먹을 꺼 같은 거 사갖구 오드래두 쉽게 갖고 올 썬가 없쥬.

[갖+고]

(16) 나중에 내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갖구 있었는데. [갖+구]

(17) 제 표준어에 대한 인식두 갖게 돼고 그랬었는데 그전에는 뭐

...

[갖+게]

(15)와 (16)은 H유형이고, (13)과 (14)는 I유형이다. 그리고 (17)은 J유형이다. H는 총 16회 나타나고 I와 J는 모두 합해 65회 나타난다. 전자는 {고}가 붙은 어형이나 후자는 {고}가 붙지 않은 어형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어형과 유형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가지+X형>과 <갖+X형> 중에서 앞으로 다뤄야 할 어형이 있는 예는 (4)에서 (7) 그리고 (15)와 (16)이다. 어원적 어형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지+X형>의 A와 B 그리고 <갖+X형>의 H이다. A는 [가지고/ 가지구/ 가주구] 어형, B는 [가주] 어형, 그리고 H는 [갖고/ 갖구] 어형이다.

23) 이와 관련해서는 III의 1을 참고할 것.

둘째,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A와 B, 그리고 H는 어미 {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데 이는 어미 {고}가 있거나 탈락된 유형들이다.

셋째,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세 유형은 그 출현 횟수가 다른 것에 비해 비교적 높다. A는 39회, B는 6회 그리고 C는 16회이다.

2. ‘가지다’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표 1을 토대로 ‘가지다’ 관련 문장 후행 부분에 나타나는 실현 양상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가지다’ 관련 어형별 전체 실현 양상 ①

<가지+ X>형							
A		B	C	D	E	F	G
A-1	오다(1) 숨겨놓다(1) / 문장(1)	가다(5) 나가다(1)	문장(1) 말이다(1)	오다(3) 가다(2) 어가지다(1)	문장(1)	첫(1) 사람(1)	문장(1)
A-2	문장(13) ²⁴⁾ 오다(2) 치다(1) 놓다(2) 다니다(4) 장난하다(2) 움직여지다(1) 얘기하다(1)						
A-3	문장(1) 가다(1)						

24) 계량 언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어형의 문장이 중심어를 중심으로 좌우 각 2~5어절 이내를 벗어나면 문장 접속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가 구어이고 앞의 처리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지고} 뒤에 또 다른 ‘목적어와 술어’가 나타나면 문장 접속으로 처리하였다. 관련 예는 핵심적 논의에 해당되지 않기에 제시하지 않는다.

<표 4> ‘가지다’ 관련 어형별 전체 실현 양상 ②

<갖+X형>				
H		I		J
H-1	계시다(1) 오다(2) 문장(3)	I-1	주다(1) 오다(1) 하다(2) 되다(1) 접다(1) 앉다(1) 만들다(1) 수습하다(1) 재간행하다(1) 과다(1) 내쫓다(1) 분실하다(1) 뜯어먹다(1) 부러뜨리다(1) 꼬다(2) 문장(23)	되다(3)
H-2	계시다(1) 오다(1) 가다(1)	I-2	주다(5) 놓다(5) 버리다(1) 팔다(1) 팔다(1) 드리다(1) 집다(1) 먹다(1) 싸다(1) 구부리다(1) 붙이다(1) 바치다(1) 좋아하다(1)	

먼저, 표 3의 <가지+X형>을 살펴 보자. A는 ‘문장, 동사, 복합 동사, 피동형’이 등장하고, B는 ‘동사, 복합 동사’가 등장한다. C는 ‘문장, 체언+이다’가 나타난다. D는 ‘동사, -어 가지다’가 나타나고 E와 G는 ‘문장’이 나타난다. F는 ‘체언’이 나타난다. (4)에서 (12)까지가 관련 예이다.

다음으로 표 4의 <갖+X형>의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H는 존재 동사, 이동 동사, 문장이 나타나고, I는 이동 동사, ‘하다, 되다’류 동사, 복합 동사, 문장 등이 나타난다. J는 ‘되다’ 동사만 나타난다.

앞의 어형과 유형 분류에서 어원적 어형은 [가지고/ 가지구/ 가주구] [가주] [갖고/ 갖구]라고 기술했다. 다시 말하면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이들 활용형은 해당 어간이 어미 {고}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있으며 그것의 출현 횟수 높게 산출된 것들이다.

이렇게 선정된 어원적 어형은 표 3과 표 4의 특정 용언과 함께 자주 나타난다면 해당 문장의 의미 기능을 고정시켜 주는 틀(frame)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2에서 논의한 ‘가지다’ 어형 중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만 다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전체

<가지+ X>형			<갖+X형>	
A		B	H	
A-1	가지고(7) / 가졌고(1)	가주(6)	H-1	갖고(10)
A-2	가지구(29)		H-2	갖구(6)
A-3	가주구(2)			

표 5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자. A와 H는 해당 어간에 어미 {고}가 결합된 것이다. A-1은 어미 {고} 앞에 선어말어미 {었}이 있거나 없는 활용형이다. A-2는 어미 ‘-고’의 구어체인 ‘-구’ 활용형이고 A-3는 어간의 2번째 음절의 ‘ㅣ’ 음소가 ‘ㅓ’ 음소로 바뀌어 ‘가주구’ 활용형이다. H는 A에 등장한 어간이 축약²⁵⁾되어 ‘갖-’²⁶⁾이 된 후 어미 {고}가 결합된 유형들이다. 즉 모두 {고}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고}는 연결어미 중 의미적으로 중립적이거나 가장 제약이 적어 사용 빈도 또한 다른 어미에 비해 높다. 이렇게 이용 범위가 비교적 넓은 {고} 어미는 또한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와 관련된 일련의 문법화 현상 과정을 잘 보여 줄 수 있는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B는 어미 {고}가 탈락된 것이다.

표 5에 나타난 각각의 어형에 그것과 어울려 나타나는 동사로

25) 축약, 생략, 위치 이동과 같은 형식적 변화도 단계성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강현화, 1998).

26) 김미영(1998)에 의하면, ‘-가-/ -갖-/ -가주-/ -주-/ -각-’으로 변하는 과정은 접사화한 단계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바뀌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의 후행 동사 실현 양상(전체)

<가지+X형>			<갖+X형>	
A		B	H	
A-1	오다(1) 숨겨놓다(1)/ ×27)	가다(5) 나가다(1)	H-1	계시다(1) 오다(2)
A-2	오다(2) 치다(1) 놀다(2) 장난하다(2) 움직여지다(1) 얘기하다(1) 다니다(4)		H-2	계시다(1) 오다(1) 가다(1)
A-3	가다(1)			

A-1에는 ‘오다, 숨겨 놓다’가 나타나고, A-2에는 ‘오다, 치다, 놀다 등’이 나타난다. 그리고 A-3는 이동 동사인 ‘가다’만 나타난다. B 역시 A-3처럼 이동 동사인 ‘가다, 나가다’가 나타난다. 아래는 관련 예의 일부이다.

(18) 나는 이제 오는 차비만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19) 꼭 돈을 가주구 가서 당신 나보구 읍:마 내려구 하는데 ...

H는 ‘계시다, 오다, 가다’가 나타난다. 다음이 그 예이다.

(20) 각을 갖고 계신 분 있으면

(21) 그래서 그걸 갖구 와서 엇들을 바까 먹고, ...

(18)에서 (21)까지의 예를 살펴 보면, 다른 유형에 비해 A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용언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A가 문법화와 관련해 무엇인가를 더 암시해 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27) ‘×’ 표시는 나타나지 않거나 없다는 뜻이다.

A는 어미 {고}를 간직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양상은 해당 의미 기능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다. 즉 어울려 나타나는 용언의 의미 기능에 따라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 기능이²⁸⁾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문법화의 정도를 해당 어형의 축약이나 형태적 보존만으로 산출해서는 안 되며 용언과의 관련성도 따져 보아야 함을 알려 주는 근거가 된다.

아래 (7)의 예를 살펴 보자.

(7) 육이오 사변 때 가주 나갈 쭈가 없으니까는. [가주+φ]

이 경우는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가 그대로 지속된다. 해당 어형에는 어미 {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는 잘 간직하고 있다. 따라서 ‘가지고’ 관련 어형 중에는 축약의 정도와 문법화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한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문법화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은 ‘의미 상실이나 의미 재분배’이다. 그렇다면 위의 예와 B유형은 그것에 위배된다. 즉, 관련 어형의 축약이 심함에도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 기능이 더 두드러진다. 이는 어원적 어형의 축약이 문법화의 심화 정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하지만 이는 관련 어형 앞에 어미 {어}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한해서이다. 즉 어미 {어}가 없는 상황적 조건에서 이동 동사가 나타나는 어형의 경우에만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를 잘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지고’ 관련 어형의 경우, {어}가 결합되지 않은 상

28) 졸고(2002a) 참고.

태라면, 관련 어형의 축약보다는, 함께 어울려 나타나는 용언적 특성에 따라 문법화의 정도가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해 문법화 관련 현상을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는 다른 유형보다, 특히 B, 동사가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B보다는 의미의 상실이나 의미의 재분배가 더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동사(복합 동사, 피동형 등)의 출현으로 인한 의미 기능의 변화 양상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동사를 중심으로 정리해 고찰해 보면 비교적 확실해진다.

<표 7>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동사 실현 양상(공통)

<가지+ X>형			<갖+X형>	
A		B	H	
A-1	오다(1)	가다(5)	H-1	계시다(1) 오다(2)
A-2	오다(2)		H-2	계시다(1) 오다(1)
A-3	가다(1)			

표 7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다’로서 이동 동사이다. B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서 ‘오다’가 나타난다. 그러나 ‘가다’도 이동 동사인 것을 고려한다면 텍스트적 출현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B이다. 그렇다면 ‘가지다’의 원래 의미 기능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동사가 출현한 A에서 의미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어휘가 서로 공기하여 기대치 이상으로 자주 쓰인다면 그 출현 환경에 어떤 언어학적 특성이 비교적이 뚜렷이 있다는 계량 언어학적 관점과도 상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발화시에 나타나는 ‘가지고’ 관련 어형은 그들과 어울려 나타나는 용언에 의해 그 출현 환경(표면적 구조)을 형성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의미 기능도 달라질 수 있으며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 문법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줄고, 2006 : 78).

III.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1. 어형과 유형 분류

해당 토박이말에서 나타나는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은 다양하다. ‘어 가지구, 어 가지군, 어 가지구서, 어 가지구선, 어 가지구서는, 어 가지구설랑, 어 가지구요, 어 가지고, 어 가지고는, 어 가지고서, 어 가지고선, 어 가지구도, 어 가주구, 어 가주구선, 어 가주, 어 가저구, 어 가꾸, 어 가, 어 갖고, 어 갖구, 어 갖구서, 어 갖구선’이 그것이다. 이를 다시 ‘가지고’처럼 <어 가지+X형>과 <어 갖+X형>으로 분류해 그것에 따라 어형을 배치하면 다음의 표처럼 나타낼 수 있다.

<표 8> ‘어 가지고’ 관련 어형 및 유형별 실현 양상 ①

<어 가지+X형>					
A		B	C		D
A-1	어 가지고(84)	어 가주(1)	C-1	어 가지고서(14)	어 가(1)
	어 가지고는(3)			어 가지고선(1)	
	어 가지고두(1)			어 가지구서(18)	
A-2	어 가지구(301)		C-2	어 가지구선(9)	
	어 가지군(1)			/ 어 가지구서는(2)	
	어 가지구요(1)			어 가지구설랑(1)	
A-3	어 가주구(71)			어 가지구설랑은(2)	
	/ 어 가저구(1)		C-3	어 가주구선(1)	

<표 9> ‘어 가지고’ 관련 어형 및 유형별 실현 양상 ②

<어 갖+X형>			
E		F	
E-1	어갖고(5)	F-1	어 갖구서(1)
E-2	어갖구(24) / 어가꾸(2)	F-2	어 갖구선(1)

위 표에 의하면 <어 가지+X형>은 모두 4개이고 A~D가 그것이다. A는 총 463회 출현하고 앞서 다룬 <가지+X형>의 [가지고/가지구/가주구]와 관련 있다. B는 총 1회 출현하고 역시 앞서 다룬 <가지+X형>의 [가주]와 관련 있다. C 역시 앞서 다룬 <가지+X형>의 어미 {고서}가 나타나는 [가지구서] 어형과 관련 있으며 총 48회 나타난다. D는 1회 출현한다. 아래는 추출된 자료의 일부이다.

- (22) 그때는 여기서 서울력 가 가지구 경이선을 타야 돼.[어 가지구]
(23) 시에서 그걸 팔었다가 다시 사 가지구설랑 거기 서울 육백년
 멀 맨들어났는... [어 가지구설랑]
(24) 지난 번에 민속박물관에서도 나한테 연락이 와 가지구서 뭐 이
 제 한 얘기가 있어서... [어 가지구서]
(25) 이 구멍이를 팝시다. 그래 가주구 언 땅이 잘 파지우?
 [어 가주구]
(26) 천구백팔씩육년에 가서 가저구 천구백팔런에 돌아가셨거든
 [어 가저구]
(27) ...촬영해가, 그때 올림픽, 그 영화 같은 거 나오든. [어 가]

<어 갓+X형>은 두 개 유형으로 나타난다. E와 F가 그것이다. 이 두 유형은 ‘가자’의 줄어든 꼴이 그 어간이라는 점이다. E는 총 31회 출현하고 앞에서 논의한 <갓+X형>의 [갓고/ 갓구]와 관련 있다. F의 경우는 앞의 <갓+X형>에서 추출된 예가 없지만 여기서는 2회 나타난다. 두 유형과 관련된 예는 다음과 같다.

- (28) 엉망이 돼 가꾸...그래서 그런 데서 놀:구 그때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가꾸]
- (29) 실내 스케트장이 생겨 갖고 거기서들 많이 스케트를 탔고...
[어 갖고]
- (30) 경단이랴구 그래 참쌀루다 똥글똥글하게 고를게 뭉쳐 갖구서

팔죽을 떠주는데...

[어 갖구서]

II에서 다룬 어원적 어형과 대응시켜 <표 8>과 <표 9>를 살펴 보자. <어 가지+X형>의 경우 [어 가지고/ 어 가지구/ 어 가주구] [어 가주]가 어원적 어형과 유사하다. <어 갖+X형>의 경우 [어 갖고/ 어 갖구]가 어원적 어형과 유사하다. 이를 어원어 고빈도 원리에 적용시켜 보면, 결국 II의 어원적 어형만큼 해당 어형도 높게 출현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어원적 어형이 어미 {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어형에도 그대로 이어져 나타나며 그것이 문법화의 어원어 고빈도 원리에도 상응하는 것임을 알게 해 준다.

2.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

1) 어원어 어형의 실현 양상

앞의 II에서 논의한 ‘가지고’와 ‘어 가지고’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원적 어형만을 추출해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전체

<가지+ X>형			<갖+X형>	
A		B	H	
A-1	가지고(7) / 가졌고(1)	가주(6)	H-1	갖고(10)
A-2	가지구(29)		H-2	갖구(6)
A-3	가주구(2)			

<표 11> ‘어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전체

<어 가지+X형>			<어 갖+X형>	
A		B	E	
A-1	어 가지고(84)	어 가주(1)	E-1	어 갖고(5)
	어 가지고는(3)			
	어 가지고두(1)			
A-2	어 가지구(301)		E-2	어 갖구(24) / 어 가꾸(2)
	어 가지균(1)			
	어 가지구요(1)			
A-3	어 가주구(71) / 어 가져구(1)			

위의 표는 ‘가지고’의 <가지+X형>과 ‘어 가지고’의 <어 가지+X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형을 추출해 비교한 것이다. II에서 논의한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이 어미 {어}의 결합 후에도 여전히 비례적 관계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굵은 글자 참조). <가지+X형>의 A가 다른 유형보다 많이 나타나면 <어 가지+X형>의 A도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나타남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차이도 있다. <어 가지+X형>의 A-1과 A-2는 <가지+X형>과 달리 조사가 함께 나타난다. ‘-는, -두, -ㄴ, -요’가 그것이다. 이는 <어 가지+X형>의 A-1과 A-2가 ‘가지-’ 어간을 잘 유지하면서 어미 {고}를 간직하고 있다는 데서 일어난 현상인 듯하다.

2) 동사 실현

해당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 어울려 나타날 수 있는 선행 동사는 대략 다음과 같다.²⁹⁾

29) 출현하는 것 중 대략 횟수가 많은 것과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기호는 실제 더 많이 있으나 한정된 지면으로 다 실지 못했다는 뜻이다.

<표 12>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동사 실현 양상 전체 ①

<어 가지+X형>					
A		B	C		D
A-1	되다(3) 가다(6) ³⁰⁾ 하다(2) 만들다(3) 쓰다(3) 나다(2) 나가다(2)	사다 (1)	C-1	되다(1) 하다(2) 오다(2)가시다(1) ...	촬영하다(1)
	오다(1) 질문하다(1)...			맞다(1)	
	돌아오다(1)				
A-2	되다(7) ³¹⁾ 가다(4) ³²⁾ 오다(10) 사다(7) 하다(38) ³³⁾ 만들다(8) ³⁴⁾ 나오다(3) ³⁵⁾ 쓰다(1) 나다(2)...		C-2	되다(1) 사다(1) 하다(3) 가다(2) 오다(1) ...	
	* ³⁶⁾			하다(3) 나오다(1) / 오다(1) 갈다(1)	
	*			사다(1)	
A-3	되다(1) 사다(1) 하다(13) ³⁷⁾ 만들다(2) 뭉치다(1) 나다(3) 나가다(1) 나오다(1) ... / 가시다(1)		C-3	가시다(1) 만들다(1) *	

<표 13>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동사 실현 양상 전체 ②

<어 갖+X형>			
E		F	
E-1	나다(1) 생기다(1) 올라가다(1) 받아들여지다(1)	F-1	뭉치다(1)
E-2	되다(2) 하다(3) 사다(1) 싸다(3) 덮이다(1) ... / 되다(1) 얹다(1)	F-2	싸다(1)

30) ‘가시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1) ‘되시다(1)’과 ‘안 되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2) ‘못 가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3) ‘하시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4) ‘만드시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5) ‘나오시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36) ‘*’ 표시는 문장이 접속된 것을 나타낸다.

37) ‘안 하다(1)’을 포함한 숫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 가지+X형>에서는 ‘가다, 오다, 나오다’의 이동 동사와 더불어 ‘하다, 되다’ 동사, 그리고 ‘만들다, 사다, 되다’ 등의 동사 및 복합 동사가 나타난다. 다음은 그것의 일부 예이다.

- (31) 그때는 여기서 서울력 가 가지구 경이선을 타야 돼.
- (32) 아빠뜨가 살던 사람들이 많아, 사 거주구 오는데 ...
- (33) 우리 어머니가 인제 차멸미를 하셔 가지구, 전찬 멸미 안 하거든요.

<어 갖+X형>에서는 ‘하다, 되다’ 동사, ‘사다, 싸다’ 등의 타동사와 복합 동사 ‘올라가다’, 그리고 피동형인 ‘덮이다’와 ‘받아들여지다’ 등이 나타난다. 아래는 그것의 일부 예이다.

- (34) 단지만 조성이 돼 갖구, 그런 시절이라, 거기 가서 매미 잡고, 놀:구.
- (35) 실내 스케트장이 생겨 갖고, 거기서들 많이 스케트를 탔고...
- (36) 완전히 덮여 갖구, 암키아 수키아가 완전히 안 보였다구.

그러나 <어 가지+X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동 동사 ‘가다, 오다’는 <어 갖+X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어 가지+X형>과 <어 갖+X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출현 횟수가 ‘가다, 오다’의 이동 동사만큼 높은 동사는 ‘되다, 하다’이다. 특히 어원적 어형인 ‘가지다’ 관련 용언에서 볼 수 없었던 ‘되다, 하다’가 어미 {어}가 결합된 어형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어미 {어}의 의미적 기능과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어}가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를 <가지+X형>의 어원적 어형과 대응시켜 보면 확실해진다. 다음이 그것을 비교한 표이다.

<표 14>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의 후행 동사 실현 양상(전체)

<가지+X형>		<갖+X형>	
A		B	H
A-1	오다(1) 숨겨놓다(1) / ×	가다(5) 나가다(1)	H-1 계시다(1) 오다(2)
A-2	오다(2) 치다(1) 놀다(2) 장난하다(2) 움직여지다(1) 애기하다(1) 다니다(4)		H-2 계시다(1) 오다(1) 가다(1)
A-3	가다(1)		

<표 15> ‘어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실현 양상 전체(동사)

<어 가지+X형>		<어 갖+X형>	
A		B	E
A-1	되다(3) 가다(6) 하다(2) 만들다(3) 쓰다(3) 나다(2) 나가다(2)	B-1 되다(1) 사다(1) 하다(13) 만들다(2) 몽치다(1) 나다(3) 나가다(1) 나오다(1) ... / 가시다(1)	E-1 나다(1) 생기다(1) 올라가다(1) 받아들여지다(1)
	오다(1) 질문하다(1) ...		
	돌아오다(1)		
A-2	되다(7) 가다(4) 오다(10) 하다(38) 만들다(8) 사다(7) 나오다(3) 쓰다(1) 나다(2) ...	B-2 사다(1)	E-2 되다(2) 하다(3) 사다(1) 싸다(3) ... / 되다(1) 않다(1)
	×		
	×		

‘가지고’ 관련 어형 중 어원어에 해당하는 어형과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을 비교해 보면, ‘가다, 오다’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³⁸⁾.

‘가다, 오다’는 그 자체로도 출현 횟수가 많다. 그것만큼 ‘하다, 되다’의 출현 횟수도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하다, 되다’ 동사는 부정형 ‘안·과도’ 같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의 일부이다.

(37) ... 지금 껌 지금 꺼 고리가 연결이 안 대 가지구 그런 게 있다구

‘가지고’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정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다, 되다’에 비해 그 출현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가다, 오다’는 여전히 꾸준히 나타나며 어원적 어형과 그것이 나타나는 해당 문형의 의미 기능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동 동사가 아닌 다른 동사의 출현과 어미 {어}의 출현으로 그 횟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전히 이동 동사는 ‘가지다’의 원래적 의미를 지탱하면서 문법화의 지속성 현상에 관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다, 오다’는 ‘이동’이라는 원래적 의미를 유지하면서 이동의 위치 및 또는 이동 대상에 따라 ‘장소 이동, 상태 변화, 감각 변화, 감정 변화, 시간 변화’ 등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면서 의미 기능의 재분배 및 문법화의 층 만들기 현상에도 일조하고 있는 듯

38)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가지고/ 갖고’의 경우에는 후행 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어 가지-X/ 갖-X’의 경우에는 선행 용언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출현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문법화의 지속성’을 보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셨다. 물론 해당 현상은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해당 현상은 의미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용언의 출현 위치와 관련해서 서로 이질적인 배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관련 구문의 핵심적 의미 기능과 관련한 결과이다. 즉 ‘가지고/ 갖고’의 경우는 구 접속 구문이 대부분이었고, ‘어 가지-X/ 갖-X’의 경우는 문장 접속 구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인 의미 기능의 지속성 현상 및 층 만들기 현상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어 가지고’의 선행 형식과 관련된 분포적 제약은 이미 줄고(2002a, b)에서 밝혀 놓았다.

하다.³⁹⁾ 그리고 ‘하다, 되다’ 등의 적극적 출현으로 의미 기능의 재분배 및 문법화의 증만들기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용언의 기능이라 함은 용언의 어휘적 의미와 문형 형성으로 나타난다. 한 개별 용언이 어떤 문형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또 의미의 차이가 문형의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하기(조남호 외 3인, 2005) 때문이다. 따라서 문법화의 지속성 및 증위화 과정은 단순히 기술될 것이 아니라 용언과 어원적 어형, 그리고 어떤 어미와 결합되느냐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관찰한 뒤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어 가지고’에 나타나는 사동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의 사동형 실현 양상

<어 가지+X형>			<어 갖+X형>	
A		B	F	
A-1	묻히다(1)	×	E-1	×
	×			
	×			
A-2	식히다(1) 녹히다(1) 말기다(1) 불리다(1) 얼리다(1) 올리다(1) 줄이다(1) 키우다(1) 피우다(1)		E-2	× / ×
	×			
	×			
	×			
A-3	놀래다(1) 식히다(1) / ×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지고’에서는 사동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꽤 나타난다. 특히 <어 가지+X형>

39) 이기동(1977), 이수련(2002) 참고.

의 A-2에서 많이 나타난다. 위 표가 그것이고 다음이 그 예이다.

- (38) 색혀 가지구 그걸 저, 이 식혜 헐래면은 옛기름이라구 있잖아
 (39) 학생은 놀래 가주구 막 보통 그 학생들 책상 사이에 간격이 떨
 어져 있죠.

이것 또한 어미 {어}가 어원적 어형에 기대면서 사동형이 나타
 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피동형의 경우도 사동형처럼 <어 가지+X형>에서 나타난다. 다
 음이 그것을 정리한 표와 예의 일부이다.

<표 17> ‘가지고’ 관련 어원적 어형 피동형의 실현 양상

<가지+X형>				<갖+X형>	
A		B		H	
A-1	×	B-1	×	H-1	×
A-2	움직여지다(1)	B-2	×	H-2	×

<표 18> ‘어 가지고’ 관련 피동형 실현 양상

<어 가지+X형>			<어 갖+X형>	
A		B	E	
A-1	넓혀지다(1) 알려지다(1)	×	E-1	받아들여지다(1)
	×			
	×			
A-2	놀리다(2) 뜨이다(1) 쌓이다(1) 없어지다(2)		E-2	덮이다(1) 벗기다(1) / ×
	×			
	×			
A-3	뵈히다(1) / ×			

피동형도 사동형처럼 어미 {어}가 출현 환경을 조성하였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을 거라 판단된다. 다음은 관련 현상의 예 일부이다.

(40) 완전히 덮여 갓구, 암키아 수키아가 완전히 안 보였다구.

피동의 경우, 사동형과 달리, <어 갓+X>형의 [어 갓구]에도 나타난다.

3) 형용사 실현 양상

‘어 가지고’ 관련 어형은 어미 {어}가 나타나는 환경과 유사하다. 따라서 어미 {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형용사의 실현이다.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도 비록 어원적 어형에 기대지만 형용사가 나타나며 그것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9>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형용사 실현 양상 전체 ①

<어 가지+X형>					
A		B	C		D
A-1	그렇다(11) 있다(3)	×	C-1	거나하다(1)	×
	이렇다(2) 높다(1)				
	느끼다(1) 아프다(2)		C-2	×	
	이렇다(1)			×	
A-2	×		C-2	×	
	그렇다(71) 있다(8)			×	
	없다(3) 없어지다(2)			그렇다(1)	
	어렵다(1) 많다(1)			있다(1)	
	저거하다(4) 맑다(1)			저거하다(1)	
	얕다 ⁴⁰⁾ (1)아깝다(1)			/	
	힘들다(1) 무섭다(1)			그렇다(1)	

	엄하시다(1) 크다(1) 짓궂다(1) 친하다(1) 푸근하다(1)			있다(1) 저거하다(1) 없다(1)	
	그렇다(1)			×	
	없다(1)			×	
A-3	그렇다(13) 있다(3) / ×		C-3	그렇다(1)	

<표 20>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형용사 실현 양상 전체 ②

<어 갖+X형>			
E		H	
E-1	그렇다(1)	H-1	×
E-2	그렇다(6) 어렵다(1) / ×	H-2	×

위 표를 보면,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형용사는 ‘그렇다, 있다, 없다, 어렵다, 저거하다’이다. 이는 어원적 어형에 해당하는 ‘가지고’에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어미 {어}가 붙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이 그 예의 일부이다.

- (41) 그래 가주구 졸업을 했지.
- (42) 그전엔 한강에 채방이 없:어 가지구요 채방이 없:어 가지구 기
냥 물이 마:을까징
- (43) 우리집이 좀 어려워 갖구 그때 머 다 어려웠지 전국이 다 어려
웠을 땐
- (44) 남구 쪼개는 사람이 있어 가지구서 쪼개 놓고, 일련내 떼는 거
지, 쓰구.
- (45) 게서 고종...님께 아마 저거해 가지구선 이름을 고쳤대나 바요

40) ‘많지 않다’이다.

특히 ‘그렇다, 이렇다’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 어형이 화용 표지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원어의 원래적 의미 기능이 많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가면서 담화적 기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역시 어원적 어형에 기대어 나타나는 양상이고 출현 횟수도 그것처럼 많이 나타난다.

4) 명사의 실현 양상

해당 토박이말의 경우 ‘어 가지고’ 관련 어형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IV. 맺음말

본고는 앞선 연구들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서울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 양상을, 문법화 관련 가설 중 의미 기능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과 관련있는 어원어 고빈도 원리 및 용언의 상관성에 기대어 살펴 보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패턴성을 띠고 있으리라는 데서 출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지다’의 다양한 활용형 중에서 ‘어 가지고’와 관련 있는 일련의 것들을 유사한 것끼리 묶어 어원적 어형을 결정지었다. [가지고/ 가지구/ 가주고] [가주] [갖고/ 갖구]의 세 유형이 그것이었다. 둘째, 확정된 어원적 어형들은 어미 {어}가 결합한 뒤에도 텍스트적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이와 같은 어원어의 텍스트적 고빈도 출현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전략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과 관계있는 결과임도 알게 해 주었다. 셋째, 어원적 어형에서 자주 나타났던 ‘가

다, 오다' 용언도 어미 {어}가 결합한 어형에서 높은 출현 횟수를 보였다. 이는 어원적 어형과 함께 자주 나타나는 용언이 해당 문장의 표면적 구조에 일정 부분 관여함으로써 의미의 지속성 및 층 만들기 현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넷째, 문법화 과정에서 어미 {어}의 영향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즉 어원어는 문법화와 관련 있는 어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어미는 복합 동사와 사동사, 피동사, 부정형 그리고 형용사 등의 적극적 수용과 관련 의미의 지속성 및 층만들기 현상에 더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서울 토박이말의 경우, 앞선 논의인 대구 토박이말과 달리, '가지-' 어간에 어미 {고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가지고서' 및 '어 가지고서' 관련 어형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화의 지속성 및 층만들기와 관계있는 듯한 이 현상은 대구 토박이말과 서울 토박이말의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지리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은 후고로 미루었다.

주제어 : 어원어 고빈도 원리, 가지고, 어 가지고, 문법화, 실현 양상, 어형, 패턴, 연어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국립국어연구원(1995), 『서울토박이말 자료집(Ⅰ)』.
 국립국어연구원(1997), 『서울토박이말 자료집(Ⅳ)』.
 국립국어원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http://www.korea.go.kr>) 사이트

2. 논문

- 김미영(1996), 「국어 용언의 접어화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 김태엽(1987), 「‘가지다(持)’의 문법화에 대하여」, 『대구어문논총』 5, p.21~p.36, 대구어문학회.
- 남길임(2006), 「‘아니다’의 패턴 연구」, 『어문론총』44, p.1~p.33, 한국문학언어학회.
- 범금희(2002 a),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1)」, 『어문학』 75, p.21~p.38, 한국어문학회.
- 범금희(2002 b), 「{어 가지고}와 관련된 문법화 현상에 대하여(2)」, 『배달말』 30, p.23~p.40, 배달말학회.
- 범금희(2006), 「대구 토박이말의 {어 가지고} 관련 어형별 실현양상」, 『한민족어문학』49, p.65~p.94, 한민족어문학회.
- 성낙수(1999), 「경상도 방언에서의 [- 어 가지고]의 접미사화 연구」, 『先淸語文』27-1, p.589~p.683,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이기동(1977), 「동사 ‘오다, 가다’의 의미 분석」, 『말』2-1, p.139~p.159,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수련(2001), 「소유 도식으로 본 <오다>, <가다>」, 『한글』 258, p.185~p.217, 한글학회.
- 임규홍(1994), 「‘-어 가지고’에 대하여」, 『배달말』19-1, p.49~p.80, 배달말학회.
- 한영균(2002), 「어휘 기술을 위한 언어 정보의 추출 및 활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국어학』 39, p.137~p.173, 국어학회.
- 한영균(2004), 「문법화와 언어 구성 변화 - ‘있.’의 경우」, 『국어학』44, p.211~p.239, 국어학회.
- 홍운표(1984), 「현대 국어의 후치사 {가지고}」, 『東洋學』14, p.25~p.40,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3. 단행본

- 강범모(2003),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 강현화(1989), 『국어의 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김은일·박기성·채영희 옮김(1999), 『문법화』, 한신문화사.
- 김주식 옮김(2006), 『문법화의 본질』, 한국문화사(Tania Kuteva(2001),
Auxiliation ; An Enquiry into the Nature of Grammaticalization,
The university of Oxford).
- 박병선(2005), 『한국어 계량적 연구 방법론』, 역락.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 이정애(2002), 『국어 화용표지의 연구』, 월인.
- 이효상(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 조남호 외(2003), 『한국어 학습자용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태학사.
- 허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Actualization phase for native spoken of Seoul related with
{eo gajigo}

Beom, Geum-H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 of grammaticiz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first, [gajigo/ gajigu], [gajugo], [gaju] and [gat'go/ ga'tgu] are the appropriate word forms among the various applicative forms of 'gajida' in etymological word the of this research. The second, [gajigo/ gajigu], [gajugo], [gaju] and [gat'go/ ga'tgu] come under the etymological word, which continuously affect the word form that the {eo} connected ending was binded with, and their appearance frequency in the text is high. The third, The verbs of 'go, come' that appeared in the etymological word also comes forth continuously in the connecting end {eo} binding form, and the appearance frequency in the text is also high. The fourth, We observed the relationship of the connecting end {eo} under grammaticalization process. The last, in the case of the Seoul native spoken, related with the word forms of [gajigoseo] and [eo gajigoseo] that appear in the etymological word, which is estimated to be an effect of the grammaticalization..

Key words : High Textual Frequency of Source, gajigo, eo gajigo, grammaticalization, Actualization phase, Form of Word, pattern, collocation

범금희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712-741)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 053-810-2110

전자우편 : amaila@ynu.ac.kr

이 논문은	2007년	10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12월	15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12월	30일	간행함